

# 광주 교육서비스업, 전남 농업분야 최다

## 통계청 '2018 하반기 지역별 취업자 산업·직업별 특성'

소매업·음식점 주점업·전문직별 공사업 뒤이어  
여수·나주 도소매·음식 숙박업 취업 크게 늘어

지난해 광주에서는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가, 전남에서는 농업 관련 분야 취업자가 가장 많았다. 광주시인 여수시와 빛가람혁신도시로 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나주시의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 분야로 취업한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별 취업자 일자리를 산업 중분류로 구분했을 때 광주는 교육 서비스업에 취업한 사람이 6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초·중·고·대학과 일반 학원 종사자 등을 포함한 수치다.

소매업(자동차 제외) 취업자가 6만명으로 뒤를 이었고, 보건업(5만4000명), 음식점 및 주점업(5만1000명), 전문직별 공사업(4만6000명) 등의 순이었다.

통계 작성 기준이 된 10차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에는 한식당, 중식당, 일식당, 제과점, 피자 가게, 치킨점, 분식집, 생맥주 전문점,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등이 포함된다.

전남에서는 농업 관련 분야 취업자가 17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7만7000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종사자(7만7000명), 음식점 주점업(7만2000명), 교육 서비스업(5만1000명) 등이었다.

또 지난해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등 전남 5개 시 가운데 목포와 여수의 건설업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는 지난해 1만4000명이 취업해 전년(8700명)보다 1700명(19.5%)이 증가했고, 여수는 1만61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1900명(11.8%) 늘었다.

여기에 전남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꼽히는 여수에서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전년 2만3300명에서 2만6100명으로 2800명(12%) 증가했다. 빛가람혁신도시가 있는 나주 역시 빛가람동 일대 인구유입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가 8100명에서 9400명으로 1300명(16.0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전국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2027만3000명)의 월 임금 비율은 200만~300만원(29.7%)이 가장 많았다.

이외 100만~200만원(27.1%), 400만원 이상(16.8%), 300만~400만원

(16.3%) 100만원 미만(10.2%) 등이 뒤를 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200만원 이상 비율은 늘었지만 그 미만은 줄었다. 2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은 0.7%포인트, 100만~200만원은 3.7%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 전체 취업자 2709만명을 232개 산업소분류별로 분석한 결과 음식점업(163만7000명), 작물재배업(130만7000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95만1000명) 순으로 많았고, 남성은 작물재배업(71만8000명), 여성은 음식점업(105만1000명)에서 가장 많았다.

15~29세는 음식점 및 주점업(52만6000명), 30~49세는 교육서비스업(103만9000명), 50세 이상은 농업(123만9000명)에서 각각 취업자가 가장 많았으며, 중졸 이하는 농업(90만4000명), 고졸은 자동차 제외 소매업(116만4000명), 대졸 이상은 교육서비스업(156만명)에서 취업자 수가 1위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20.51 (+3.86)	금리(국고채 3년) 1.77 (0.00)
↓ 코스닥 761.42 (-0.59)	↑ 환율(USD) 1141.80 (+0.30)



### 광주은행 '등록금 납부' 이벤트 당첨자 장학금 증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 '2019년 1학기 등록금 납부'와 '체크카드 경품' 이벤트의 당첨자를 발표하고, 이벤트의 1등과 2등 당첨고객 2명을 본점에 초청해 장학금 증정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은행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1학기 등록금 납부' 이벤트는 지난 17일 이벤트 당첨자 추첨을 통해 총 102명을 선정했다.

이에 장학금 증정식을 통해 1등 당첨자 1명에게 장학금 200만원, 2등 당첨자 1명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외에 행운상 100명에게는 1만원 상당

스타벅스 모바일쿠폰을 전달했다. 당첨자는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체크카드 경품' 이벤트는 기간 내 네이퍼페이 간편결제로 광주은행 개인체크카드를 등록하고 합산 3만원 이상 이용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GS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전달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항상 광주은행에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며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다.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채권단, 아시아나항공 1조6000억 지원...자회사 일괄 매각

## 금호고속 브릿지론 1300억 지원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에 1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50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사들여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또 한도대출(크레딧 라인)로 8000억원, 보증한도(Stand-by L/C)로 30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기간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항공기 운항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공여 방식으로 대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전제로 금호고속에 브릿지론 형태로 1300억원을 지원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구조는 박삼구 전 회장→금호고속→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순으로 이어진다.

박 전 회장 측이 대주주인 금호고속은 금호산업의 지분 45.3%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흑시나 금호고속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돼 매각 주체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채권단은 금호고속에 이 1300억원을 지원해 제2금융권 대출을 갚게 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박 전 회장 일가, 금호고속,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과 특별약정도 체결한다.



### 프리미엄 티 하우스 '흑화당' 팝업 스토어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무산될 경우 매각 대상 지분을 채권단이 임의의 조건으로 매도한다는 동반매각요청(Drag-along)과 아시아나항공 상표권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임의의 조건'은 예컨대 1차 매각이 무산되면 구주 중 일부만 팔거나 구주 매각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할 수 있다고 산업은행 측은 설명했다.

### 주광주신세계는 오는 28일까지 지하 1층에 프리미엄 티 하우스 '흑화당'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다.

흑화당은 매장서 흑당 버블을 직접 줄이는 디저트 브랜드로, '흑당 버블 아이스크림', '흑당 버블 밀크티', '석류 아이스크림' 등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제공>

### LH, 올 광주·전남 민간건설 주택 1296호 매입

#### 일반 거주용 1067호

#### 청년·고령자 거주용 229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대상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광주와 전남에서 민간건설 주택 1296호를 매입한다고 23일 밝혔다.

LH는 올 연말까지 광주를 비롯해 목포와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지역에서 '민간건설 주택 매입약정방식'을 통해 일반 거주용 1067호, 청년·고령자 거주용 229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다가구·다세대 등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대상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완성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주요공정에 LH가 점검을 실시

해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부동산경기하락에 따른 미매각·미분양 위험과 건축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매입대상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가 취약한 계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있고 임대조건이 저렴해(시세의 30% 수준)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LH는 이와 관련, 오는 25일 오후 2시 LH 광주전남본부에서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호남의 미래와 희망 광주일보가 함께 합니다

## 중앙만 바라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지역발전은 지방신문이 선도합니다

- 서울은 어디 있습니까?
- 지방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 중앙지는 누구 편입니까?
- 지역신문은 우리 지역을 대변합니다.
- 지역신문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 한국지방신문협회

광주일보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경인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신문

